



여수박람회 해상무대 '이어도' 뒀다
예술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관련기사 2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250여일 앞두고 초대형 해상무대인 '이어도'가 박람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길이 48m, 너비 30m, 높이 2m에 600t 중량의 타원형 무대인 이어도에서는 박람회기간 동안 각종 문화, 예술공연이 펼쳐지게 된다. /여수=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제1회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

9월18일 개막...48개팀 참가 3개월 열전



광주일보사가 주최해온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올해부터 사회인 야구대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7년간 무등기 고교야구대회는 아마추어 야구의 산실로서 야구인들의 스타 등용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무등기 사회인야구대회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해 대회는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 리그로부터 경기력 기준으로 3개 그룹 각 16개팀을 추천받아 모두 48개팀이 토너먼트를 벌이게 됩니다. 야구를 사랑하

- 대회기간= 2011년 9월 18일~11월(매주 일요일)
- 대회장소= 광주 무등경기장 외 지정 구장
- 경기방식= 천왕·지왕·인왕 토너먼트
- 시상=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감독상,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등
- 자료확인= 광주일보 홈페이지 참조
- 문의= 광주일보 문화홍보국 (062-220-0541)

光州日報社

금강산 막히고 東西 멀어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년이 지났지만, 김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통과 화합, 평화와 통일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남북관계는 되레 경색되고, 지역갈등과 사회분열은 심해져 민주주의는 더욱 깊은 터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이 부르짖었던 '아권 통합'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는 아권이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해 반드시 '아권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DJ 서거 2년...실종된 遺志

아권통합 논의만 무성 성사 산넘어 산 남북화해 강경 일변도 냉전시대 회귀 동서화합 편중인사·지역불균형 심화

게 과감하게 양보하라.' '뭉치고 나눠 가져라.'라는 말을 거듭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일부 보궐선거에서 아권은 '부분적 연대'를 거치면서 일부 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등 본격적인 '아권 통합'을 추진해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통합 논의는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남북화해=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는 평생의 업이었다. 노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남북정은 대화의 문을 열어내는 등 남북화해의 '물꼬'를 트면서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었다. 이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은 분단시대 정치인으로서 충실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경색된 남북관계는 지난해 3월 천안함 침몰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을 연이어 겪으면서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가 엄습해오는 '냉전의 심'으로 급격히 되돌아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고, 심지어 남북교역과 교류·협력을 전면 중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남북관계 경색에는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이 현 정부가 추진중인 남북관계에 대해 적절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대 오승룡 교수는 "남북관계

경색은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가치관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다르기 때문"이라며 "북한을 돕는 것이 남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현 정권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서화합=김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란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다. 그런 만큼 망국적인 지역감정 타파에 앞장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던 지역균형 발전은 온데간데 없고, 영남 편중 인사와 함께 호남 소외를 더욱 부추겼다. 5+2 광역경제권과 LH공사의 경남 진주 이전, KTX 건설 등 최근 정부의 국책 사업에서 잇따라 호남이 소외됐고, 이명박 정부의 인사는 '영남 우대, 호남 홀대'로 일관했다.

오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키워드를 두고 특정지역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강자를 더 강하게 하는 경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아차 노사 임금협상 재합의

사회공헌기금 50억 조성 포함...내일 조합원 찬반투표

기아자동차 노사가 17일 기존 임금 인상안에 추가해 사회공헌기금 50억 원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올해 임금협상안에 재합의했다. 노조는 이 합의안에 대해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전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임금협상 9차 본교섭에서 밤샘 마라톤협상 끝에 이날 새벽 극적으로 임협 재합의안을 만들어냈다.

재합의안은 기존 합의안에 ▲교통사고 유자녀 특별장학금 지급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50억원 조성 ▲재직중 사망 조합원 유자녀에 대한 고교 장학금 지원 ▲추석연휴 휴무 1일 등이 추가됐다. 이번 협상에서 기아차 노사는 추가 임금인상 대신 기업의 사회책 이행을 위한 항목을 추가

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50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해 교통사고 유자녀(소년소녀 가정)들에게 향후 10년에 걸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내협력사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원천사인 기아차 노사가 앞장

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1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달 22일 기본급 9만원(5.17%) 인상, 성과·격려급 300%+700만원 지급, 회사주식 80주 지급 등 임금인상안에 합의한 바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아리따운 내 가슴을 사랑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AMOREPACIFIC CORPORATION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2011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1년 10월 9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ㄹ 전국 5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동시 실시

종목 10Km / 5Km

참가비 10,000원 ㄹ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홈페이지 접수 www.pinkcampaign.com
ㄹ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메뉴에서 '핑크리본 마라톤' 클릭
하위 메뉴 '사랑마라톤 참가신청' 클릭하여 약관 동의 후 신청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카프

▶ 후원 | 한국유방암학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 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 협찬 | HERA, 케토툰, 르까프